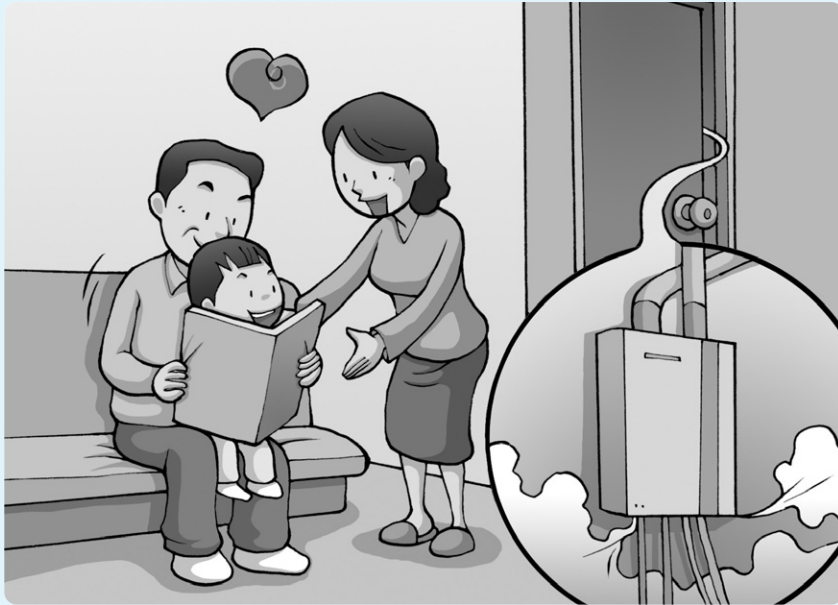


## 보일러 안전사고 예방



날씨가 추워지면서 집집마다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있다.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보일러는 작동 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가 섞인 배기가스가 실내로 역류하여 질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.

주요 원인은 배기가스를 밖으로 빼주는 배기팬이 고장나거나 환기구가 막히는 등의 가스보일러의 노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. 또한 전기순간온수기가 얼었을 때 점화하거나 과열되어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.

안전하게 사용하려면...

- 사용 설명서에 나온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.
- 겨울에 전기순간온수기를 사용할 때에는 0℃ 이상의 온도에서만 사용하고 제품의 내부에 물이 얼었다고 판단될 때는 전원을 켜지 말아야 한다. 겨울에는 제품이 얼어서 파손될 수 있고 아무리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기 오작동으로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.
- 전기순간온수기는 항상 기기 몸체 내에 물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영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실내에 설치해야 한다. 그러나 부득이 실외에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할 때 결빙 유무를 확인하고 전원 스위치를 ON/OFF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.
- 전기순간온수기에 절수용 샤워기를 사용하거나 배관을 했다면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이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기 몸체에 과다한 수압이 가해져 폭발할 수 있다. 물이 들어오는 방향에서 ON/OFF 하고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은 항상 열린 상태로 두어야 한다.
- 가정에서 가스보일러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환기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.
- 노후보일러의 경우 이산화탄소가 배기통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보일러 자체 내에서 새어나올 수 있고 배기통이 부식되면 보일러 배기통에서도 새어나올 수도 있으므로 점검하고 안전하게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. 